

여성의 저승 체험담 「황천일기」 연구

김정숙*

|| 차례 ||

- I. 들어가는 말
- II. 「황천일기」 작품 개관
- III.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교훈서로서의 저승체험담
- IV. 서사에 스며든 무속적 상상력
- V. 나오는 말

【국문초록】

「황천일기」는 여성의 저승체험담을 다룬 한글소설로, 고려대 도서관 소장 「사씨남정기」와 합철된 필사본이다. 내용은 만력 갑신년에 죽은 이경중의 부인 유씨가 삼년상을 치른 후 세 명의 여성 차사에게 끌려갔다가 잘못 끌려온 것을 알게 되고 죽은 남편과 부친을 만난 뒤 여러 여자를 만나 전생의 과보에 대해 듣고 돌아오는 저승체험담이다.

「황천일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주요 등장인물이 여성이라는 점이니, 주인공이 여성일 뿐 아니라 저승 차사도 여성이고 저승에서 만나는 상당수가 여성으로, 여성에 의해 서사가 진행된다. 여성이 일상 생활에서 범할 수 있는 죄목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여성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이 작품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이다. 「황천일기」의 또 다른 특징은 작품 속에 보이는 무속적 상상력이다. 이념적으로 불교적 권선징악보다는 여성의 소박한 일상 윤리를 강조하고 내용면에서 무당을 불러 저승차사를 대접한 다거나 ‘꽃’이 생명의 상징으로 중요하게 등장하는 모습 등은 기존의 저승체험담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황천일기」의 연구를 통해, 저승체험담의 이념성은 첫째 불교적 윤리관을 담은 부류, 둘째 불교적 외피에 유교적 함의를 지닌 부류, 셋째 유불교 통합으로 권선서의 경향을

* 고려대학교 융합문명연구원 연구교수

보이는 부류와 더불어 무속적 지향성 띠고 있는 부류로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주제어 : 황천일기, 여성, 저승체험담, 무속적 상상력, 꽃, 저승 차사

I. 들어가는 말

이 글은 여성의 저승체험담을 다룬 한글 소설 「황천일기」에 대한 논의로, 본 작품은 본고를 통해 처음 소개되는 것이다. 고려대 도서관 소장본인 「황천일기」는 「사씨남정기」와 합철된 것으로, 전체 15면에 매면 13행, 매행 22자 내외로 이루어졌으며, 두 작품 모두 한 사람에 의해 필사된 것으로 보이고, 뒷 부분은 낙장된 결본이다.

주 내용은 본론에서 상술하겠지만, 이경중의 아내 유씨가 저승차사의 착오로 저승에 잘못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저승체험담이다.¹⁾ 저승체험담은 불경(佛經)에서부터 설화, 야담이나 소설 등에 매우 다양하게 등장하는 형식이며 조선 후기 소설에서는 흥미를 위한 하나의 에피소드로 활용될 정도로 익숙한 것이었다.²⁾ 「황천일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등장인물 대다수

1) 작품에서 유씨가 끌려가는 곳은 ‘황천’인데, 소설 속에서 황천은 이승의 대척적인 개념으로 그 안에는 화산 옥루의 시왕의 마을도 있고, 그 위에는 유화궁, 천화궁도 있으며 더 나아가 서천도 있다. 본고에서는 황천과 저승을 같은 개념으로 혼용하여 사용한다. 또한 뒷부분이 낙장이라 유씨가 환생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내용상 유씨가 다시 살아난다고 보아 ‘저승체험담’으로 명명하였다.

2) 저승체험담은 이른 시기 「왕랑반혼전」에서부터 「목란전」 등의 불교계 소설에서부터 야담 『천예록』에 보이는 다수의 저승왕래담, 「남염부주지」나 「저승전」처럼 작품 자체가 저승체험담으로 구성된 소설 외에 「목시룡전」이나 「설홍전」처럼 저승 체험이 삽화로 포함된 소설 등 조선후기에 매우 보편화된 서사 형식이다.

가 여성이라는 점이다. 주인공이 여성일 뿐만 아니라 그녀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세 명의 저승차사도 여성이고, 저승에서 만난 이들 중 상당수가 여성으로, 여성에 의해 서사가 진행된다. 여성의 저승체험을 다룬 무가나 소설, 설화에서 공주, 며느리, 할머니 등이 저승을 다녀오긴 하지만 등장인물 대다수가 여성인 경우는 많지 않다.³⁾ 이는 「황천일기」가 여성들 간의 갈등을 다룬 「사씨남정기」와 합쳐져 있다는 점과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만한 것으로, 필사자가 주 대상으로 한 것이 여성이며, 여성에 대한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작품에 보이는 무속적 상상력이다. 저승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저승에서의 징치보다는 여성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를 강조한다거나 무당을 불러 저승차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꽃’이 생명의 상징으로 중요하게 등장하는 모습 등은 기존의 불교적 저승체험담과는 구별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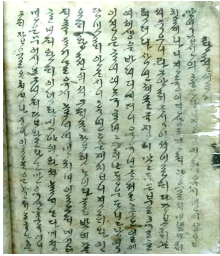
본고가 「황천일기」에 대해 처음 소개하는 자리이니만큼 우선 작품의 경계에 대해 소개하고 위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따라 작품을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⁴⁾

3) 가사체 고소설 「저부인전」에 삽입된 저승체험담은 저부인이 병이 들어 저승에 끌려갔다가 시부모의 도움으로 이승으로 돌아오는 구조인데, 저부인이 저승에 가게 된 원인이 부정적 인물인 뽕똥어미와 그의 외할머니인 노고할미의 계략에 저승차사가 빠져기 때문이었다. 시왕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고 불교적 저승관념이 부각되었다는 점은 차이가 있지만, 여성이 사건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저부인전」의 저승체험담을 「황천일기」와 같은 선상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부인전」이 권선징악을 표방한 소설로 계녀가사의 특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본 작품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고를 준비 중이다. 「저부인전」에 대해서는 유권석 외, 「새 자료 가사체 고소설 「저부인전」에 대하여」, 『동양고전연구』 제70집, 동양고전학회, 2018, pp.211-25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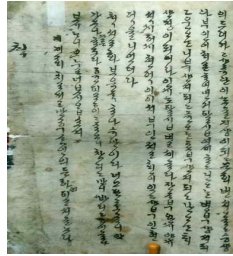
4) 고대본 「황천일기」의 해독은 단국대 교양학부 김정녀 교수의 도움에 힘입은 바 컸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II. 「황천일기」 작품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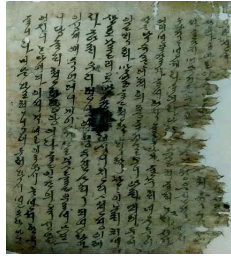
「황천일기」 1면



「황천일기」 15면



합철된 「사씨남정기」 끝



「황천일기」의 내용을 단락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만력 갑신년(1584년)에 홍문관 이경중이 경상도 경차관으로 갔다가 죽자 그의 처 유씨가 자식 셋을 데리고 두문불출하고 지냄.
- ② 을유년(1585년) 초오일에 세 명의 여성 차사가 황천에서 잡으러 와서 따라감.
- ③ 깊은 산속 높은 집의 시왕에게 가서 유씨가 잘못 잡혀 온 것이 밝혀지고 유씨의 신병치리를 위해 '유화궁'으로 보내게 함.
- ④ 화산에 도착하자 주홍 궁궐에 왕, 관원, 만조백관이 각 층에 앉아 있는데, 한 도사가 어수선하니 물러가라고 함.
- ⑤ 어디로 갈 줄 몰라 통곡하자 한 젊은 계집이 불쌍히 여기고 집으로 데려가 시부모의 옆방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함.
- ⑥ 이튿날 차사 순대를 따라 전날 갔던 삼층 궁궐에 가니 상층에 있던 관원이 유화궁으로 가라고 명하여 다시 모르는 계집을 따라감.
- ⑦ 가는 길에 관원이 되어 가마를 타고 가는 남편을 만났는데 아직 때가 아니니 돌아가라고 하며 자신이 유화궁에 가서 처리하겠다고 함.
- ⑧ 한 곳에 이르니 차사 청운이 삼백 층이나 되는 홍도화를 안고 서 있는데, 꽃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써 있었으며 하루에 들어오는 사람의 수와 같았음.
- ⑨ 또 한 문으로 들어가니 수백 칸 집이 있었고 35세로 죽은 동생 유경과

남편이 글을 쌓아두고 의논하고 있었음.

- ⑩ 또 한 곳에 가서 돌아가신 부친을 만남. 부친이 유씨에게 들어올 날이 멀었다며 오라비와 낭군이 다 이름 적는 관원이니 가려 하면 어렵지 않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어디론가 바빠 말을 달려감.
- ⑪ 한 여자를 따라가니 그 문에서 다른 한 여자가 나와서 유씨는 69세에 들어올 것인데, 전생의 죄가 중하여 잡혀 온 것이라고 하며 죄를 나열함. 이후 착한 일을 하면 후세에 남편과 부부가 되고 자식도 크게 될 것이라고 하며 꽃밭에 물을 주라고 함.
- ⑫ 맨 위층에 앉은 여자가 다른 여자를 가리키며, 저들도 부모 죄 때문에 잡혀 왔다고 말하고 또 다른 처자를 가리키며 역시 부모가 죄가 있어 꽤 씹혀 귀한 아이를 데려와 애를 태운 것이라고 말함.
- ⑬ 유희궁에 있는 여러 방을 구경하던 중 한 방에서 예안의 시고모를, 또 한 방에서는 시삼촌을 만남.
- ⑭ 한 여자가, 세상에 나가 이 땅에 대해 전하거나 마음을 잘못 먹으면 다시는 못 들어올 것이며, 시부모를 지성으로 섬기고 친족 권당을 후대해야 다시 올 수 있다고 함. 또 한 여자가 행실을 삼가야 함을 경고하고 그 죄는 자식에게까지 화가 미친다고 함.
- ⑮ 하직하고 돌아오는 길에 천연두로 20세에 죽은 형님을 만남. 형님은 그 곳이 천화광이란 곳이며, 인간 세상의 욕심 없고 어진 이들은 다 이곳에서 노닌다고 말함.
- ⑯ 이후 낙장.

낙장인 뒷부분은 흐름상 유씨가 만난 형님에게 오라버니의 행방에 대해 묻고 이승으로 돌아와 충고대로 바른 삶을 살다가 69세에 생을 마치는 것으로 진행될 듯하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면 「황천일기」는 전체적으로는 여성의 저승체험담 또는 환생담이며, 의미 지향의 측면으로 볼 때는 여성의 도리를 깨우치는 교훈담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의 배경을 살피기 위해 첫 장면을 보면 다음과 같다.

만력(萬曆) 갑신년 홍문관 니경등(李敬中)의 처 유씨 년이 삼십칠세라. 니경등이 경상도 경주관(敬差官)으로서 밀양(密陽) 쓰히셔 죽으니라. 그 안히 즈식이 서이로디 다 강보히 쓰헛더라. 삼년 제술 극진히 맛고 두문불출하여 세상을 바려 디니더니 을유년⁵⁾ 스월 초오일에 이경(二更)은 호여 여축(如廁) 하려고 자히란 동을 드리고 남역 담 밋히 안즈시니 홀연 고은 계집니 것히 와 일오디, “황천(黃泉)의셔 그더를 잡헛는다.”⁶⁾

소설에 등장하는 ‘만력 갑신년(1584년, 선조17)에 경상도 경차관으로 갔다가 밀양 땅에서 죽은 이경중’은, 바로 조선전기 정여립(鄭汝立)을 논책하였다가 정인홍(鄭仁弘) 등에게 논핵당하여 파직된 이경중(李敬中, 1542~1584)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1584년에 응교(應敎)와 집의(執義)로 있다가 정철(鄭澈)과의 불화로 경상도 추쇄어사(推刷御使)로 좌천되고 밀양에서 병사(病死)하였다. 작품 속에서 ‘홍문관 니경중’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경중이 응교 벼슬을 했기 때문이니, 정황상 실존 인물 이경중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그의 정부인(貞夫人)은 유씨가 아니라 조연충(趙彦忠)의 딸 조씨(趙氏)이며, 향년 64세로 2남 1녀를 두었다.⁷⁾ 소설 속에서 유씨는 향년 69세였고 자식이 셋이라고 하였으니, 실제 인물 조씨와 비슷한 점이 있긴 하지만 동일인물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유씨를 완전히 가상의 인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작품 속에 유씨의 동생으로 35세에 죽은 유경과 천연두로 20세에 요절한 형님, 예안(안동) 시고모, 부모님 덕의 두 하인

5) 을유년은 1585년으로 이경중이 죽은 지 햇수로 2년이니, 삼년상을 치렀다는 소설 내용과 차이가 있다. 내용상 삼년상은 상례를 지냈다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보인다.

6) 고대본, 「황천일기」, p.1. 원문은 순 한글로 되었지만 내용 이해를 위해 한자를 병기하였다.

7) 許穆, 『記言別集』 卷18, 「丹崖李參判碑銘」, “貞夫人趙氏, 籍白川, 忠清道兵馬使處候彦忠之女也.”; 金孝元, 『省菴先生遺稿』 卷2, 「錦川君墓誌」, “正郎娶忠武衛右部將白川趙彦忠之女, 生二男一女, 男曰幼渾, 幼淳, 女適幼學朴耆俊.”

이름까지 등장하는 등 유씨 주변 인물들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씨 부인이 저승에 갔다가 와서 69세에 죽었다는 내용으로 볼 때, 작품은 삼년상을 마친 1585년(을유년)보다 33년 뒤, 즉 1618년 이후를 배경으로 한다. 그리고 합철된 「사씨남정기」의 “계희 칠월 망후 습일의 등하의 필서호노라”라는 필사기를 참고할 때, ‘계해년’은 1743년, 1803년, 1863년 등이니, 이와 비슷한 시기에 필사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면 「황천일기」는 18, 19세기에 필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작가는 전혀 알 수 없으나, 내용상 여성의 시각으로 여성적 관심사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 및 여성 주변 인물이 지은 것으로 보이는데, 여성적 시각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술하겠다.

Ⅲ.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교훈서로서의 저승 체험담

「황천일기」에는 수많은 여성이 등장한다. 구체적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한 여자’로 지칭되기도 하며, 단순히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주인공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물론 소설에는 남성도 등장하니, 저승에서 시왕을 만났고 화산의 삼층집에서 왕과 관원, 수많은 백관을 목격했으며, 화려한 행차를 하고 가는 죽은 남편 이경중이나 부친, 시삼촌을 만나기도 한다. 특히 저승에서 만난 남편은 유씨에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빨리 이승으로 돌아가라고 하며 자신이 유희궁에 가서 처리하겠다고 나서기도 하며, 부친 역시 유씨에게 이승으로 돌아가기를 재촉하면서도 그녀의 외로운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서러워하는 그녀를 위로한다. 남편과 부친은 유씨가 매우 그리워하는 인물로 이들과의 만남은 내용상으로도 중요한 부

분이기는 하지만 본고에서 여성적 특성⁸⁾을 「황천일기」의 문학적 특성으로 꼽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여성에 의한 서사 진행

「황천일기」는 주인공이 여성이고 ‘식고모’, ‘식삼촌’ 등 여성 입장에서 사용된 용어가 많을 뿐 아니라 수많은 여성이 등장하는데, 분석을 위해 작품 속 여성 등장인물과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간	인물	역할 및 특성
현실	유씨	주인공, 37세에 상부(喪夫)하고 삼년상을 치렀음.
현실과 황천	순대, 청운, 초옥	세 명의 여성 차사 저승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유씨를 인도함.
황천	젊은 계집	유씨가 갈 곳 없어 헤맬 때 자신이 집에 가서 숙식 제공해 줌.
	채의(彩衣) 입고 구슬 같은 것을 찬 여자, 오색 화관을 쓴 여자	유화궁임을 알려 줌.
	순매와 남덕	부모가 생전에 부리던 종들. 부친과 만나게 해줌.
	인도하고 경고하는 여자	유씨가 69세에 다시 들어올 것이며 전생의 죄로 인해 남편도 일찍 죽었고 부모도 벌을 받았으니, 세상에서 선행을 하면 저승에서 남편을 다시 만나고 자식도 출세할 것이라고 말함. 꽃밭에 물 주고 가라고 함.

8) 본고에서 사용하는 ‘여성’의 용어에 페미니즘적 사유가 포함되지는 않았다. 다른 저승 체험담에 비해 서사의 대부분을 여성이 이끌어 가고, 서사가 목적하는 바가 여성의 교화에 있다는 점에서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맨 윗층에 앉은 여자	다른 여자들이 어떻게 잡혀 왔는지 이력을 말해 줌.
예안 시고모	한 방에 있다가 술을 부어 줌.
젊은 여자와 늙은 여자들	각각 방에 앉아서 바느질도 하고 책도 보고 쌍륙도 치고 윷도 놀고 나이 많은 여자는 일없이 앉아 이승 말을 하기도 함.
또 한 여자	세상에 나가 마음을 바르게 먹을 것, 시부모와 친족 권당을 후대할 것 등을 권고함.
또 한 여자	어제 잡아 온 여인의 허물을 나열. 여성이 지켜야 할 덕목 강조함.
여자 두 명	하직하고 오는 길에 본 두 여자. 낚시하며 놀고 있었음. 선경이었음.
27세로 죽은 형님	요절한 형님. 이곳이 천화광이며 욕심 없고 어진 이가 오는 곳이라고 알려줌.

소설에는 최소한 19명의 여성이 나오는데, 이들 간에 비중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다들 주인공 유씨의 저승 체험에 관여한다. 저승을 인도하는 이들도 여성이고, 저승에서 갈 곳 몰라 하는 유씨를 인도한 것도 여성이며, 유씨가 저승에 끌려오게 된 원인과 앞으로 살아갈 태도에 대해 알려 주고 저승에 끌려온 다른 여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알려 주는 것도 여성이다. 그 중 「황천일기」에서 가장 독특한 여성 인물들은 다음의 경우이다.

1) 세 명의 여성 저승 차사(差使)

삼년상을 마치고 두문불출하던 유씨에게 어느 날 밤에 세 명의 여성이 찾아와서 황천으로 가기를 재촉한다. 이들은 저승 차사로 저승 차사가 여성인 경우는 지금까지 저승담 관련 서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저승 차사의 성별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대개 무서운 명령을 전하는 역할을 하

기 때문에 건장한 모습에 사나운 형상의 군졸(軍卒)로 묘사되었고,⁹⁾ 시왕 도에서도 말을 탄 사내의 모습으로 그려졌다.¹⁰⁾ 그렇기 때문에 여성 차사가 등장하는 「황천일기」는 매우 이례적이다.

홀연 고은 계집니 것히 와 일오디, “황천의셔 그더를 잡혔느이다.” 하고 밧비 가를 지축허거늘, 유씨 놀니여 밀치며 일오디, “네 엇더호 녀지(女子) 완디 이렇타 심야의 와서 놀닌다. 네 성명은 무어시오?” 그 녀지 답왈, “나는 만유산 초옥이니 그더 잡으로 온 치식(差使)라. 하나 일흠은 순디요, 하나흔 청운이라.” 허거날, 유씨 내다보니 담 우히 순디란 치식 안자 불근 글을 뒤적니거늘……¹¹⁾

위의 예문을 보면 이들은 황천에서 온 차사가 분명하나 외모는 ‘고은 계집’이다. 「황천일기」 자체가 묘사를 세밀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에 대해 다른 정보는 없지만, 기존의 저승 차사의 모습인, ‘쇠사슬로 목을 매어 끌고 가거나’(『천예록』6화), ‘표범 같은 얼굴과 경쇠 같은 눈으로 양손에 철퇴를 잡고’(『설홍전』) 소리치며 쫓아오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 이들은 붉은 글씨로 적힌 저승 장부를 체크하고 유씨에게 저승으로 갈 것을 재촉할 뿐이다. 물론 유씨도 다른 저승 체험자처럼 차사를 만나 놀라고 혼절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차사의 험악한 모습 때문이 아니라 황천으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 때문이지 형상적인 면에서 공포감을 주는 존재는 아니다. 도리어 다소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하니, 유씨가 저승 차사를 보고 혼절하자 무당을 불러 제사 지낼 때, 청운과 초옥이

9) 김정숙, 「조선시대 비일상적 상상력-요괴 및 지옥 형상의 내원과 변모」, 『한문학논집』 제35집, 근역한문학회, 2012, pp.107-108.

10) 사령형(使令型) 인물에 대해서는 송미경, 「사령형 인물의 형상화 양상 및 전형성」, 『구비문학연구』 제32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11, pp.309-350 참조.

11) 고대본, 「황천일기」, pp.1-2.

제사 음식을 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유씨의 신병 처리를 위해 간 궁궐에서 풍류 소리 가득한 가운데 차사들은 술에 취하여 유씨를 인중에 두지 않았다. 「황천일기」의 차사는 기존의 저승담에 보이는 남성적 차사와 성별의 차이뿐 아니라 인간적이고 해학적인 모습으로 그려진다는 점을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

2)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천녀(天女)들

저승으로 잘못 잡혀 온 유씨의 신병 처리는 쉽게 결정되지 않고 유보된다. 화산 옥루에서 만난 시왕은 그녀가 사납고 나쁜 사람이라면 비명(非命)이라도 그냥 두겠지만 유씨가 세상에서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며 판단을 유보하고 유희궁으로 보낸다. 또 주홍 궁궐의 화려한 집에 있던 관리들 또한 그녀를 유희궁으로 보내 처치하게 한다.

유희궁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내용상 옥황상제가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데, 옥황상제 대신 어떤 여자가 나와 유씨가 왜 저승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해 준다.

이윽고 흰 여지 나와 이르디, “그더 늑십구 년의 아조 드러오려이와 네 전생(前生)의 죄 둥(重)하야 네 집의 이슬 제 무상(無狀)하야 동성의 덕을 괴로이 보치고 식집의 가서 양주부 되야 혼낫 식누의를 괴로이 못 견디어 호고 양식부모 지물을 전당(典當)하야 바히 아니 쥬려 호고 적은 일도 크게 호고 남 듯는 디 어진 체 호고 안모음의 무상하야 죄상이 무궁하니 인간의 늑십구 년을 가득히 이를 썩이고 네 낭군도 네 죄에 잡아왔시니, 네 부모는 독주(獨子)를 일코 너를 보치게 하여시니, 아나야 네 인간 인성의셔난 모음을 어질게 먹고 식부모를 지성으로 섬기고 형제 화목하야 착하면 전세 죄악을 다 싹그면 네 드러와도 네 낭군과 혼티 잇고 후세에도 부부(夫婦) 되게 호고 조식도 즉금(只今) 잇는 거시 효주(孝子)라. 내중은 크게 되미라. 쏫 밧티 를 쥬고 가라.”¹²⁾

‘흔 여주’는 유씨에게 그녀가 69살까지 살 것이며, 전생에 며느리의 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그 죄로 평생 애를 썩이고 남편 또한 잡혀 왔으니 죄를 씻으면 잘살게 될 것이라는 해결책을 일러준다. 또 세 명의 여자는 황천에 잡혀 온 여자들¹³⁾이 왜 잡혀 왔는지에 대해서도 알려 주는데, 이는 다른 저승담에서는 남성적 존재인 시왕이나 옥황상제의 목소리로 구현되던 것이었다.¹⁴⁾

이 여인들은 유화궁의 ‘천녀(天女)’들로, 화산 옥루의 시왕에 비해 지위가 높고 시왕이 판단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판결을 내리며, 인간의 과거와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다. 이들의 목소리는 황천의 최고 존엄인 옥황상제의 목소리와 차이가 없을 정도로 권위가 있고 위협적이며, 단순한 남성의 대체자가 아니었다. 이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고 여성적 입장에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다.

2. 여성이 지켜야 할 교훈의 반복적 제시

사실 유씨는 차사에게 끌려 저승으로 가면서도 왜 가는지 알지 못했다. 많은 저승 체험담에서 주인공은 병을 앓거나 사망하거나 죄를 지어 저승에 끌려가지만,¹⁵⁾ 유씨는 삼년상을 치른 뒤 세상을 등진 채로 지내던 중이었다. 저승에 잘못 끌려온 이야기에서 주인공들은 저승의 참혹한 모습을 구경하고 돌아가 저승의 실재를 믿고 선업을 쌓는 것이 일반적 형식이었는

12) 고대본, 『황천일기』, p.9.

13) 전생의 죄로 인해 잡혀 온 것이 모두 여자라는 점도 『황천일기』의 여성적 특징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두 여자 모두 부모의 죄로 인해 대신 잡혀 왔다.

14) 이는 「저승전」, 「설홍전」에서는 염라대왕, 「별회심곡」에서는 열시왕과 최참판, 「목시룡전」에서는 푸른 옷을 입은 사자의 목소리로 밝혀졌던 내용이었으니, 이들은 모두 남성이다.

15) 안병국, 「저승설화 연구」, 『우리문학연구』 제16집, 우리문학회, 2003, pp.237-270.

데, 「황천일기」에는 그로테스크한 저승이 묘사되어 있지도 않다. 이는 「황천일기」의 초점이 지옥의 참상을 통한 불교적 교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앞의 예에서 보았듯 그녀가 저승에 끌려가게 된 것은 차사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 그녀가 전생에 행했던 악업의 결과였다. 그 악업이란 시집가서 시누이를 못 견뎠던 것, 시부모의 재물을 빼앗은 것, 겉으로만 어진 척하고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 등이다. 그 죄로 유씨는 69년 평생을 애를 끓이며 살 것이고, 그 죄가 남편에게 미쳐 일찍 죽게 되었으며, 그 죄로 유씨의 부모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도 다른 것이 아니라 ‘먹음을 어질게 먹고 식부모를 지성으로 섬기고 형제 화목해야 착하게 하는 것이다. 시부모를 정성껏 모시고 권당(眷黨)을 지극히 후대하는 것은 결혼한 여성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다.

유씨뿐만 아니라 황천에 끌려온 다른 여인들의 죄목도 ‘부모의 먹음을 편계 쫓을 아니 밧고 동싱을 원슈로 알고 부귀(富貴)호 니를 공경호고 동싱이르도 빈턴(貧賤)호 즉 박디(薄待)호고 밧그로 어진 체 호나 그 먹음은 무상호고 부절 업시 남을 미워’한 것으로, 일상 속에서 쉽게 범할 수 있는 일들이었다. 이는 다른 저승담에서 ‘인간의서 벼살하여 직물을 탐하고 나라을 섬기지 안니하고 빅성을 만이 쥬기’(「저승전」)는 따위의 남성적 부정행위, 혹은 ‘三寶를 믿지 아니하고 짐승을 삶아 먹는’(목련전) 등의 불교적 부정행위와는 다른, 여성의 일상적 부정행위에 대한 지적이다.

유씨의 저승 체험담의 초점은 바로 여성이 일상적으로 지켜야 할 덕목에 있으며 이를 반복적 제시함으로써 여성들을 교화하고 교정하려는 데 있다. 특히 남성보다 우위에 있는 여성이 여성적 시각에서, 여성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점에서 「황천일기」는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교훈서라고

할 만하다. 복선화음 사상과 서사성 강한 작품이 널리 퍼져 있던 조선 후기에 서사성이 강한 복선화음류의 가사와 서사적 도교 권선서가 유행하였는데¹⁶⁾, 그 주 향유층은 일반 백성, 그중에서도 여성 독자층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나온 「황천일기」는 저승체험담이라는 서사적 흥미와 교훈적 내용으로 인해 독자층인 여성을 자연스럽게 교화하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IV. 서사에 스며든 무속적 상상력

1. 시왕맞이 장면

여성을 대상으로 한 「황천일기」에는 무속적 성향을 드러내는 부분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먼저 저승 차사가 왔을 때 유씨가 기절하자 온 집안 사람들이 놀라 무당을 불러 굿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는 마치 제주도 무가의 「사만이본풀이」 한 장면을 보는 듯하다.

유씨 내다 보니 담 우희 순디란 치식 안자 불근 글을 뒤적니거늘 보노리
 하니 정신이 아득하여 혼절하니 종들이 놀니여 붓드러 방의 누이거늘 정신
 을 찰히니 각별 압흔 디난 업스디 기운을 슈습디 못허거늘 계요 이 밤을 식
 와 혼혼(昏昏) 허엿더니 맛참의 순디 불너 왈, “어셔 가사이다.” 하니 또 혼
 절하니 합기(闔家) 황황(惶惶) 망조(罔措) 허여 무당을 불너 기도(祈禱) 허
 니 순디는 본 체 아니코 청운이 먹즈 호고 서로 듯토더라.¹⁷⁾

16) 조선 후기 도교 권선서와 저승체험담의 유행에 대해서는 김정숙, 「19세기 유교의 통속화와 「저승전」의 이념성」, 『동양고전연구』 제69집, 2017, pp.297-324 참조.

17) 고대본, 「황천일기」, p.2.

유씨가 기절하자 무당을 불러 기도할 때 차려놓은 많은 음식을 순드는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청운과 초옥이 서로 먹으려고 다투고 있는 장면이다. 제사 음식을 먹기 위해 저승 차사가 다투는 장면은 시왕맞이 굿에서 구연되던 「사만이본풀이」류의 차사 형상을 연상시키는데, 「사만이본풀이(맹감본풀이)」는 사만을 잡으러 온 삼차사에게 몰래 제물을 차려 두니 배가 고팠던 삼차사가 정신없이 먹고 나중에 그것이 사만이가 차린 음식인 것을 알고 그의 수명을 늘려 주었다는 내용이다.¹⁸⁾ 사만의 수명이 3천 살로 늘어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차사를 속이고 대접했던 음식에 있지만 「황천일기」에서 차사들이 음식을 다투는 이 장면은 흐름상 그다지 필요한 장면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장면을 넣은 것은 저승 차사에게 정성껏 음식 대접을 해야 한다는 당대인들의 무속적 상상력이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생명의 상징으로서의 ‘꽃’

「황천일기」의 무속적 성향이 보다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작품 전반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꽃’이다. 주지하듯 무속에서 꽃은 생명의 상징으로 흔하게 쓰이는 소재이다. 「천지왕본풀이」에서 대별왕과 소별왕이 저승과 이승을 차지하기 위해 내기한 것이 ‘꽃피우기’였으며, 「명진국생불할망본풀이」에서 명진국따님과 구삼신할머니 아이 탄생을 놓고 내기한 것도 ‘꽃나무 피우기’였다. 이 내기에서 이긴 명진국따님이 옥황상제에게 씨를 얻어 서천 꽃밭을 만들었다. 또한 「이공본풀이」에서 원강도령과 원강암이가 결혼했는데 옥황상제가 원강도령에게 ‘서천 꽃밭의 꽃감관’을 하게 하여 헤어지게 된다. 이후 원강암이가 낳은 아들 할락궁이가 아버지를 찾아 서

18) 권복순, 「제주도 무속신화에 나타난 인물의 기능과 구술적 특징 : 〈사만이본풀이〉를 중심으로」, 『어문학』 제119집, 한국어문학회, 2013, pp.79-105.

천 꽃밭으로 가게 되고, 김장자에게 어머니가 살해당한 것을 알게 된 할락 궁이가 어머니를 환생시킨 것도 꽃을 통해서였다. 즉 무속 신화에서 꽃은 중요한 신화소이며 서천꽃밭은 그러한 꽃들이 피어 있는 신화적 공간이다.¹⁹⁾

이러한 상징적 존재인 꽃이 「황천일기」 곳곳에 중요한 서사 장치로 등장하는데, 작품 속에서 꽃은 생명의 원천이며 낯선 생명감으로 다가온다.

먼저 「황천일기」에서 꽃은 차사의 잘못으로 끌려온 유씨에게 낯선 아름다움으로 다가온다. 유화궁으로 가는 길에 만난 화산은 백화만발한 아름다운 곳이었다. 유씨는 저승 차사에 의해 끌려가기는 했지만 작품 안에는 처참한 저승의 모습은 없고, 향내가 진동하고 맑은 물이 눈부시게 흐르며 천만 가지의 꽃이 화려하게 피어 있던 이계의 모습이 그려진다. ‘화산(華山)’, 이름 그대로 꽃이 만발한 이곳은 이계를 방문한 낯선자에게 찬란한 생명의 공간이다. 남편을 잃고 자식 셋을 데리고 세상과 단절된 죽음의 삶을 살았던 과부 유씨는 곳곳에 흐드러지게 핀 꽃에서 비현실적 생명감과 더불어 이계의 환상성이 극대화되었을 것이다.

「황천일기」에서 꽃이 보다 직접적으로 생명력의 상징으로 드러나는 것은 ‘꽃밭에 물주기’이다.

십왕 압희 형방(刑房) 궂든 사람이 불근 글을 보다가 엇자오디, “인간 사름은 다 년슈(年數)를 정호여 □□□습더니 치신 유씨를 그릇 자바 왓스오니 엇디 호오리잇가? 곳 밧히 물 주던 시녀는 서천(西天) 싣 진상(進上) 가셔 밧쳐 못 왓스오니 유씨를 더신으로 치오스이다.”²⁰⁾

화산의 꽃밭에 물 주던 시녀가 서천에 진상을 갔으니 유씨에게 대신 물

19) 강진옥, 「꽃의 신화학 서설: 제주도 무속의 신화체계 탐색을 위한 시론」, 『구비문학 연구』 제55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19, pp.8-9.

20) 고대본, 「황천일기」, pp.2-3.

주게 하자는 것이다. 주지하듯 무가에서 꽃밭에 물을 준다는 것은 꽃밭을 가꾸어 생명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²¹⁾ 유씨는 시녀의 대신이기는 하지만 ‘세상의 무해(無害)’했던 사람이었기에 생명 탄생에 관계된 일을 하는 데 자격이 있었다. 유희궁에 갔을 때도 천녀(天女)는 전생의 과보와 앞으로 지켜야 할 점에 대해 일러준 뒤, ‘꽃 밭티 물 주고 가라’고 한다. 이에 유씨는 다홍치마가 다 젖도록 세상에서 못 보던 그릇을 가지고 꽃밭에 조석(朝夕)으로 물을 준다. 물을 주어 피어난 꽃은 서천, 즉 극락으로 가게 되는 것이니 꽃밭에 물을 주는 행위는 망자가 극락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공덕을 쌓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꽃은 어디에 있느냐, 누구와 관계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데, 유씨에게 꽃이 생명의 상징, 공덕의 상징이었다면 차사의 품속에 있는 꽃은 생명의 소멸, 죽음을 상징한다.

또 훗 곳의 다드르니 처음 잡으로 왔던 청운이 홍도화(紅桃花)를 안고 셋거늘 보니 꽃치 삼백 층이라. 호고 스빅 구 입 편디 꽃 상층의난 양반(兩班)의 일흠이 쓰였고 하층의는 상인(常人)의 일흠이 쓰였더라. 사름이 호로 드러오는 거시 그 슈와 꺾짜라.²²⁾

차사 청운이 안고 있던 홍도화는 삼백층에 사백구 개의 잎이 피어 있으며 상층에는 양반의 이름이, 하층에는 상인의 이름이 쓰였다. 이 꽃은 죽어서 황천에 들어오는 사람의 수와 같았으니, 여기서 꽃은 죽은 사람을 의미한다. 저승 차사는 인간의 생명을 거두어 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청운의 손에 들린 사백구 개의 꽃잎은 하루 동안 저승 차사에 의해 끌려온 사람들이다.

21) 김창일, 「무속신화에 나타난 꽃밭의 의미 연구」, 『한국무속학』 제11집, 한국무속학회, 2006, p.181.

22) 고대본, 「황천일기」, p.4.

‘홍도화’가 「바리데기」에서 종종 나오는 소재이기는 하지만,²³⁾ 황천에 끌려온 사람들을 ‘홍도화’로 표현한 것은 「황천일기」의 독특한 설정이다. 「황천일기」에 그로테스크한 저승 묘사 없이 홍도화를 죽은 이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나 앞에서 보듯 꽃밭에 물을 줌으로써 죽은 이들을 위해 공덕을 쌓는 행위 등은 이 작품이 무속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이 지켜야 할 소박한 일상 윤리를 여성적 시각에서 강조하고, 무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시왕 맞이나 ‘꽃’을 생명의 상징으로 빈번하게 사용하는 있는 점 등은 저승의 모습이 구체화되고 이념성이 분명한 기존의 저승 체험담과 구별되는, 「황천일기」의 무속적 경향성이다. 당시 민간의 삶에 밀접한 무속이 서사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상대적으로 무속에 친숙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을 교화하고 교정하려는 의도에 의해 창작된 것이 「황천일기」라고 할 수 있다.

V. 나오는 말

한글소설 「황천일기」는 남편을 잃은 여성 유씨가 저승에 끌려갔다가 여러 사람을 만나고 돌아온다는 저승체험담이다. 이 작품은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교훈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할 뿐만 아니라, 서사 속에 무속적 상상력이 스며들어 조선 시대 여성의 삶에 밀접한 무속의 영향이 강하게 느껴지는 작품이었다.

23) 「바리공주」에서 바리공주의 어머니인 대왕마마가 임신했을 때 홍도화를 꾸었고, (「바리공주 서울 김중덕본」) 부모의 악물을 구하여 품안에 환생초를 가득 안고 왔을 때 홍도화, 백도화, 흰도화가 피었다고 하였다. (「바리공주 순천 김수정본」)

소설 속 저승체험담은 이념적 지향에 따라 크게 ‘① 불교적 윤리관을 보이는 작품’, ‘② 불교적 외피에 유교적 함의’를 담고 있는 작품, ‘③ 유불교 통합의 도교 권선서적 경향을 보이는 작품’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²⁴⁾ 이는 불경에서 시작한 저승체험담이 하나의 서사유형으로 분리된 소설에 국한된 설명이었다. 따라서 저승 체험을 소재로 할지라도 장르적으로 구분되는 무가나 불교가사는 제외하였기에 무속적 경향을 보이는 작품군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황천일기」의 연구를 통해 이에 더하여 ‘④ 무속적 경향성을 보이는 작품’을 또 하나의 부류로 설정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에 더하여 조선후기 기독교의 유입과 확산에 의한 기독교적 성향의 저승체험담에 대한 조사, 연구가 진행된다면 조선후기 저승체험담의 이념적 성향에 따른 구분은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념성에 따른 연구와 더불어 저승체험담을 성별이나 주체의 역할에 따른 연구, 저승 체험을 담고 있는 서사와 무가, 서사와 가사 등 장르 간 관계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저승체험이라는 흥미로운 소재가 조선 시대를 보다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안내서가 되기를 희망한다.

24) 김정숙, 「조선시대 저승체험담 속 죽음과 환생의 이념성」, 『Journal of Korean Culture』 제29집, 한국어문학회국제학술포럼, 2015, pp.119-138.

【참고문헌】

「황천일기」, 고려대 도서관 소장본(「사씨남정기」 합철)

단행본

김진영 외, 『서사무가 바리공주 전집』, 민속원, 1997.

논문

강진옥, 「꽃의 신화학 서설: 제주도 무속의 신화체계 탐색을 위한 시론」, 『구비문학연구』 제55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19, pp.5-48.

권복순, 「제주도 무속신화에 나타난 인물의 기능과 구술적 특징 : 〈사만이본풀이〉를 중심으로」, 『어문학』 제119집, 한국어문학회, 2013, pp.79-105.

권태효, 「무속신화에 나타난 죽음 인도신, 저승차사의 인물 형상화 양상」, 『일본학연구』 제46집, 단국대 일본연구소, 2015, pp.125-154.

김정숙, 「조선시대 비일상적 상상력-요괴 및 지옥 형상의 내원과 변모」, 『한문학논집』 제35집, 근역한문학회, 2012, pp.95-118.

김정숙, 「조선시대 저승체험담 속 죽음과 환생의 이념성」, 『Journal of Korean Culture』 제29집, 한국어문학회국제학술포럼, 2015, pp.119-138.

김정숙, 「19세기 유교의 통속화와 「저승전」의 이념성」, 『동양고전연구』 제69집, 2017, pp.297-324.

김창일, 「무속신화에 나타난 꽃밭의 의미 연구」, 『한국무속학』 제11집, 한국무속학회, 2006, pp.175-198.

송미경, 「사령형(使令型) 인물의 형상화 양상 및 전형성」, 『구비문학연구』 제32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11, pp.309-350.

유권석·김영, 「새 자료 가사체 고소설 「저부인전」에 대하여」, 『동양고전연구』 제70집, 동양고전학회, 2018, pp.211-255.

Abstract

A Study on a Woman's
Tales of the Otherworld, Hwangchonilgi

Kim, Jeong-suk

Hwangchonilgi is a Korean novel about a woman's experiences in the afterlife. The content is that Madame Yoo returns to the afterlife after her husband's death, and meets her dead husband and father, meets several women and hears about the sins of her past life.

The important thing is that the main character is a woman, and many of the other characters are women. A narrative is conducted by a woman. The purpose of the novel is to educate women by repeatedly presenting crimes that women may commit in their daily lives.

Another important point is the shamanistic imagination. Ideologically, it emphasizes women's simple daily ethics. In terms of content, it serves as a monk and the flower appears as a symbol of life.

Through this study, the ideology of the story of the afterlife was expanded to include those with the Buddhist ethics, those with Confucian connotations in the Buddhist outer skin, and those with the tendency of the Gwon Seonseo as well as those with shamanistic orientation.

Key Word : *Hwangchonilgi*, experiences in the afterlife, shamanistic imagination, woman, reformation, symbol of life, the flower

김정숙

소속 : 고려대학교 융합문명연구원 연구교수

전자우편 : kimjs8613@hanmail.net

이 논문은 2020년 7월 22일 투고되어
2020년 9월 1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0년 9월 15일 게재 확정됨.